

# 상속세 완화에 세수결손 4.3조 가능성... “합리화 지속 노력”

(5년간)

## 2024 세법개정안 세부내용

10억초과 상속세 상한 40% 추진  
상속세 공제액 자녀 1명당 5억  
현행 5000만원서 900% 상향  
주주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  
기업 승계 과도한 세부담 완화

25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이른바 증시 ‘개미’의 수를 공개했다. 1400만 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2010년대 700만 명 안팎이던 국내 개인투자자수가 코로나19를 거치며 크게 늘어났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1400만은 총인구의 27.3%, 20세 이상 인구(4300만 명)의 32.3%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성인 3명 중 1명이 주식에 손대고 있고, 기재부는 브리핑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일단 시장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은 이미 지나갔고 다음 지방선거

2024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과세표준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	30억원!
현재 세율	10%	20%	30%	40%	50%

과세표준	2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	30억원!
개정 세율	10%	20%	30%	40%	-

### 상속세 인적공제 개요

기초 공제	1997년		현행	
	2억원			
자녀·연로자	1인당 3000만원	1인당 5000만원	→ 5억원(개정)	
미성년자	20세까지 연수 x 500만원	19세까지 연수 x 1000만원		
장애인	75세까지 연수 x 500만원	기대여명 연수 x 1000만원		

/뉴시스 그래픽

는 2년이나 넘었다. 문제는 점점 다가오는 시행일이다. 금투세는 내년 1월1일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한 제동이 마지노선이라고 본 것이다.

금투세의 기본 골격은 ‘주식 팔아서 돈 번 사람은 세금으로 20% 넘게 내라’는 것. 반면 잃은 사람에 대한 당국이 신경 써주지 않는다.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한다. 지난 정부에서 생겨난 이 제도는 수년간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상황은 바뀌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 완화’를 꺼내 들었다. 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투세와 더불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크게 완화한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초점을 맞췄다. 30억 원을 초과할 시 적용하던 50% 세율을 40%로 낮춘다. 특히 10억 초과이든 30억 원 초과이든 일률적으로 40% 상한 적용을 추진한다.

게다가 상속세 공제금액을 자녀 1명당 5억 원으로, 현행 5000만 원에서 무려 900% 상향 조정한다. 기재부는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함이라고 했다.

문제는 세수 결손 가능성이 또다시 불거진다는 데 있다. 이날 기재부가 추산한 연도별 세수효과에 따르면 향후 5

년간 세수 4조3000억원이 줄어든다. 이중 상속·증여분에서 생기는 감소분만 무려 4조500억원에 달한다. 그것도 2025년(2조4000억원)과 2026년(1조6000억 원) 등 현 정부 임기 내에 전부 발생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앞으로 5년간 각각 3600억 원, 4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세 부담은 서민과 중산층에서 62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2300억 원, 고소득자가 -1600억 원, 대기업 -917억 원 등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낮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투자, R&D,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기업상속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기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늘린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 및 이전은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등 전폭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나타난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관계법령 시행성고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저출생수석에 ‘40대 워킹맘’ 유혜미 교수

尹 대통령, 저출생대응수석실 신설  
“경제사회 구체적 변화 과제 제안  
출산율 하락 늦추고 반등 이끌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40대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컨트롤 타워로서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첫 수석으로 유 교수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저출생수석이 신설되면서 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 체제가 됐다. 또 유 신임 수석 임명 확정으로 현 대통령실에서 유일한 여성 수석이 됐다.

유혜미 신임 저출생수석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로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으로 임명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득했다. 이후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인적자본센터 연구원 등을 거치고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에 재직 중이었다.

유 수석의 남편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부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슬하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경제정책인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박하는 논문을 공저해

주목을 받았다. 또 유 수석은 그간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육아비 보조 등의 해법과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유혜미 수석은 인선 발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될 정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체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다”며 “(저출생)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에 인구기획비서관과 저출생대응비서관을 뒀다. 인구기획비서관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최한경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지낸 최중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기용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전기차 캐즘... 하이브리드 중심 시장 공략

>> 1면 ‘정의선 결단력...’서 계속

현대차는 기존 1.6터보 가솔린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이어 보다 강력한 2.5터보 가솔린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상용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팔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에 처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는 친환경차 시장이 글로벌 전

기차 시장의 캐즘 구간 진입으로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단 주요 국가들의 중장기 환경 규제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해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 확대, 캐스퍼 일렉트릭(해외명 인스터) 글로벌 론칭, 하이브리드 라인업 기술 개발 및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한 친환경차 판매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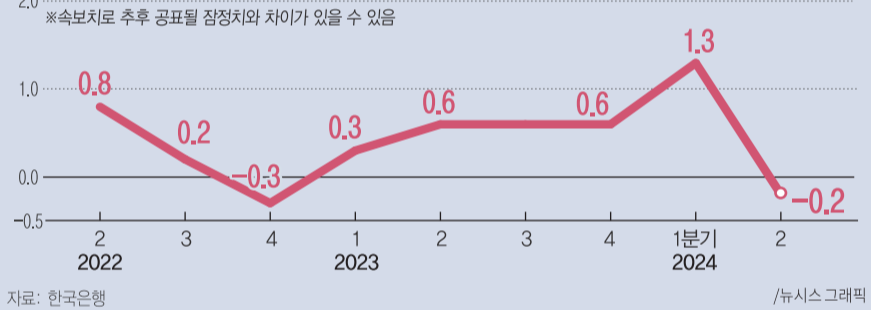
고 ▲생산 및 판매 최적화를 통한 판매 극대화 ▲SUV,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증진에 집중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주주 환원을 위한 2024년 2분기 배당금을 지난 1분기에 이어 주당 2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 배당(1500원) 대비 33.3% 늘린 금액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시장과 약속한 주주환원 정책을 반드시 이행하고,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검토하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단위: %, 전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뉴시스 그래픽

## 2분기 GDP 0.2% ↓... ‘깜짝성장’ 기저효과

한은, 실질 국내총생산 “작년보다 2.3% 상승, 서서히 개선 소비회복에 연간 2.5% 부합할 것”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와 비교해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1~3월) 깜짝 성장을 이끌었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부진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고물가·고금리 추세가 완화되면서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수출호조세가 이어지며 연간 성장률 전망치(2.5%)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GDP는 전분기와 비교해 -0.2%로 역성장했다. 이는 2022년 4분기 -0.5% 이후 최저치다.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은 “전 분기 예상보다 GDP가 반등하면서 상대적으로 2분기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며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3% 상승해 성장률은 서서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기별로 나눠보면 올해 상반기 GDP는 1년 전과 비교해 2.8% 성장했다. 반기별 GDP는 2022년 상반기 3.2% → 하반기 2.2% → 2023년 상반기 1% → 하반기 1.7% → 2024년 상반기 2.8%로 상승했다. 2022년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분기 GDP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앞서 1분기 GDP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가 일시적으로 개선되며 깜짝 증가세를 보였다. 1분기 일시적으로 증가한 요인들이 본래 흐름을 되찾으면서 2분기 GDP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민간소비는 교육 등 서비스 소비는 소폭 증가했지만 승용차, 의료 등 재화 소비가 부진하며 0.2%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1.1% 줄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늘었으나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가 줄며 2.1% 감소했다. 아울러 2분기 GDP에는 수출만큼 늘어난 수입도 한몫했다.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증가하고,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늘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늘며 GDP 감소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신 국장은 “통상 우리나라는 수출만큼 수입이 증가해야 하지만 1분기까지 온화한 날씨로 원유, 천연가스 등의 수입이 줄어들며 수출만큼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다”며 “2분기 원유, 천연가스 등의 수입이 정상화되면서 전기대비 GDP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